

#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 舊刊圖書 中國近現代關係 特異書目 및 解題

閔        斗        基

## 머 리 말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의 六層書庫에는 解放前에 蒐集된 이른바 舊刊圖書가 있다. 이 가운데 상당한 量의 中國史關係 도서가 포함되어 있어 그 質은 상당히 優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中國史 관계도서는 그 수집시기가 日帝時代이고 蒐集者가 日本人이었으므로 당시의 中國史學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卽 近代史關係史書가 적고 그 당시로서는 歷史的 研究의 對象이 되지 못했던 同時代—오늘날 우리가 現代史라고 부르는 시기—관계자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당시 中國은 激動의 渦中에 있었고 日本의 侵略대상이었으므로 역사적 연구대상은 실혹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분야에서의 관심이 고조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도서 수집에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六層書庫의 函架圖書臺帳과 現物을 中心으로 점검해보기로 하였다. 그 결과 存在를 전혀 예상할 수 없으므로 도서카드로서는 쉽게 찾아내기 어려운 뜻밖의 中國近現代史關係資料를 얼마간 찾아내게 되었다.

이들 中國近現代史關係中 그 資料的 價値가 높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 또 그 존재가 稀貴할 것으로 推定되는 것을 特異書로 이름하여 다음에 그 도서번호, 도서명, 출판연대와 함께 그 內容을 간단히 摘記하여 研究者들의 利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들 자료는 극소수는 貸出

되어 이용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전혀 利用된 적이 없어 보인다.

配列의 순서는 圖書番號 순서로 한다. 出版年號는 該當國 紀年으로 한다.

### 0130/1/1~3

重編日用百科全書(上中下三冊). n.d.

商務印書館發刊, 日常生活에 필요한 여러 정보를 수합한 것으로 民國時代의 時代相을 아는 데 도움이 된다. 수록下限은 1924年 5月頃으로 보이며 대개는 1922年 당시까지의 것이 많다. 어떤 項目에 대한 概說과 관련 法規 및 統計 등이 포함되어 있다. 上冊은 哲學 宗教 政治 行政 外交 法律 軍事 등등, 中冊은 語文學 算學 家庭 등등, 下冊은 交通 體育 文學 本國地理 등등

### 0450/64

平心編 生活全國總書目

生活書店 1935年刊. 원래 每年 刊行하게 되어 있는 全國의 出版圖書目錄인데 1934年 것이 나오지 못하고 1935年 것에 前年度 출판물을 포함하였다. 約二萬種의 書名이 책값과 出版社이름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 0700/18

北平學術機關指南.

李文禱編, 民國 22年. 北平圖書館協會刊. 北平市內의 도서관과 大學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안내서.

### 1910/54

華北公理會調查報告書(日文)

北京所在의 華北 綜合調查研究刊, 1944年 등사판. 執筆은 滿鐵의 調査要員 藤原定으로서 미국의 對中國文化事業의 조사의 일부로서 公理會(American Board Mission)의 기독교전도사업의 개요를 논술한 것이다. 1920年代를 中心으로 한 統計資料도 있다.

### 1990/5

泉州民間傳說.

民俗學會叢의 하나로 나온 것으로서 吳藻汀編. 民國 11年 11月, 廣州 中山大學出版部에서 刊行되었다. 民國 18年の 顧頡剛의 序가 있다.

2120/1 및 2120/1 複

國立北京大學廿周年紀念冊

北京大學의 開校 20주년을 기념하여 北京大學의 역사와 現況을 개설하고 있다. 刊行年度가 없으나 통상 1898年을 開校年으로 잡고 있으므로 本書가 말하는 開校 20주년은 1917年이 된다. 卽 五四운동前夕이 되는 셈이다. 「北京大學二十周年紀念會紀事」에는 民國六年十二月十七日에 紀念會를 舉行하였다고 하였다. (內容은 校歌, 沿革一覽, 規定一覽, 集會(학생씨클)一覽, 職員一覽(前任職員錄, 現任職員錄), 學生一覽(畢業同學錄, 在校同學錄) 등이다. 「在校同學錄」은 研究所 文(本科, 預科), 理, 法, 工, 預科補修班을 포함한다. 이중 職員一覽, 學生一覽은 現代史人名辭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職員一覽 중에 보면 清末改革運動의 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上海를 中心으로 활약했던 浙江抗縣出身의 葉瀚(字; 浩吾)이 文本科교수로 在職하고 있으며 年五十七이며, 胡適은 年二十八로서 文本科 교수 兼 哲學門研究所主任 兼 國文英文二門研究所(즉 大學院) 敎員이었음을 알 수 있다. 陶履恭(字; 孟餘)는 直隸 天津人이며 年三十一로서 文本科 교수 兼 哲學門研究所敎員이다. 梁漱溟은 年二十六으로서 文本科講師 兼 哲學門研究所 敎員으로 되었다. 畢業錄을 보면 光緒 33年 2月 畢業生의 優級師範科의 最優等 78名 중에 清末의 東方雜誌에서 筆名을 날린 李樹玆(字; 鐵珊, 奉天 錦州)와 民國時代의 저명한 政客으로서 衆議員議長이 되던 吳景濂(字; 連伯, 正黃旗軍)이 보인다. 民國 5年 6月의 文本科 畢業生으로는 『中國史學史』의 저자이며 『遼海叢書』의 編者인 金毓黻이 보이고 同年 預科第1部 英文甲班의 畢業生으로 五四운동의 지도자요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를 이끌었던 傅斯年(字; 夢簪)이 있다. 民國 6年 文本科 畢業生에는 저명한 共產黨系역사학자였던 范文瀾(字; 芸臺, 浙江 紹興人)이 보인다.

文科 哲學門의 研究所의 在校 同學錄에는 研究員으로서 馮友蘭(字; 芝生, 年 23, 河南 沁源人)이 本校文科 3年級을 거쳐 入學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文科 國文門研究所의 在校同學錄에는 范文瀾(年 26), 馮友蘭(年 24, 吳淞中國公學畢業, 現肄業文科國文門)의 3名이 기록되어 있다. 文本科 在校 同學錄에는 後日 저명한 小說家가 된 朱自淸(字; 佩弦, 年 20, 浙江 紹興人)이 哲學門 一年級으로 기록되고 있고, 그 外 區聲白(年 25, 廣東 順德人, 廣東高師畢業), 陳公博(字; 博公, 年 26, 廣東 南海人, 廣東法政專問畢業) 譚鳴謙(後日의 共產黨 지도자의 한 사람인 譚平山, 字; 誠齋, 年 31, 廣東 高明人, 廣東高師畢業)이, 哲學門 二年級에는 顧頡剛(字; 堅銘, 年 25, 江蘇 吳縣)이, 史學門 一年級엔(역시 廣東의 初期 共產黨 지도자인) 譚植棠(字; 仙槎, 年 24)이, 英文 一等級에는 羅家倫(字; 志希, 年 21, 浙江 紹興人)의 이름이 보이고, 理科預科의 丙班 2年

級에는 (後日の 中共의 巨頭가 된) 張國燾(字 ; 禮陰, 年 20, 江西 蕪鄉人, 江西心遠中學畢業)가 포함되어 있다. 民國前의 畢業生이 科學合格의 區分에 準하여 最優等 ○名, 優等 ○名, 中等 ○名, 下等 ○名으로 分類되어 있는 것도 흥미롭다.

2170/58

## 北京各大學的狀況

新晨報社 出版部에서 民國 18年 8月에 新晨叢書의 하나로 出刊했다. 北京所在 21個 高等教育機關의 志願生을 위한 案内書인데 北京大의 「校風之特點」은 「獨立精神 特別見解」라 하였다. 北京師大에 대한 설명중에는 과거에는 完全公費였으나 지금은 기숙비를 부담하되 學費는 免 받는다고 하였다. 正規大學外에 稅務專門學校, 鹽務專門學校 등도 포함되어 있다. 北京 주변의 北洋大學, 南開大學, 清華大學, 交通大學도 포함되어 있다.

2280/11

## 臺灣教育志稿

日本の 臺灣總督府에서 刊行한 것으로 明治 35(1902)年에 第1 卷이 大正 7 (1918)年에 第2 卷이 나왔다. 前近代시기의 臺灣의 教育史의 概略서이다.

2181/9

## 小學黨化教材 第4冊 中年級 春夏季用

新時代教育社에서 나온 것으로(n.p. n.d) 北伐에 성공한 國民黨이 中等學校에서의 國民黨理念教育을 위해 만들게 한 것이다. 1928年에 南京政府治下에서 나온 것인 듯하다. 이 新時代社 教科書는 日本人들이 抗日性이 强하다고 評하고 있다(後述 岡井二郎編, 『日本語譯, 支那の小學教科書』 참조). 소장되어 있는 第4冊은 全6冊 중의 第4冊 인데 孫中山, 勞動節(메이데이의 역사), 五四運動, 中山護法, 五七與五九(廿一個條 요구 제기와 수용의 國恥日), 五卅慘案, 北伐出師 등의 單元이 있다. 勞動節의 單元 같은 데서 武漢政權 시절의 勞農重視風氣의 殘影을 볼 수 있으며 強力한 反帝傾向을 간취할 수 있다.

2181/55/7

『新學制「社會教科書」』, 第7冊(小學校初級用, 民國 13年 1月 初版, 民國 16年 1月 115版. 商務印書館發行)

원래 1924年 1月에 나온 것으로서 北洋軍閥體制下的 社會教科書를 武漢政權 활동시기에 수정한 것이어서 당시의 一般的 風潮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舊版의 해당페이지에 改訂文을 인쇄하여 풀로 붙여 놓았다. 그런데 풀이 원

부분에만 붙여 있으니 누구나 改訂文 페이지를 들추어 舊版內容을 들여다 볼 수 있다. 例컨대 第28課는 「戊戌政變과 庚子義和團」인데 舊版에는 「당시 한무리의 愚民이 있어 官僚・親貴의 心理에 迎合하여 扶清滅洋의 깃발을 내걸었다」로 되어 있는데 改訂文은 「당시 한무리의 人民이 있어 外國제국주의자의 압박을 몸소 받아 扶清滅洋의 깃발을 내걸었다」로 되어 있다. 義和團이 愚民으로부터 人民으로 바뀌고 있을뿐 아니라 反帝國主義 주장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다. 反帝國主義에 대한 강조는 第18課의 華僑에도 舊版에 「外國人の 壓迫을 받아」라고 한 부분이 「外國 帝國主義者の 壓迫을 받아」로 改訂되어 있다. 孔子에 대한 評價를 달리하고 있는 것도 注目되는 바 第6課의 「孔子」의 舊版은 「공자는 中國의 聖人으로서」로 시작되는데 改訂文은 「孔子는 中國春秋시기의 사람으로서」로 되어 있다. 孔子를 聖人으로 보지 않고 단순한 역사적 인물로 보고 있는 것이다. 社會教科書와 같은 때 改訂된 商務印書館의 「新學制」『國語教科書』(2181/60/1)의 第25課 「孔子」에도 舊版의 「孔子는 우리나라 古代의 성인으로서」를 삭제한 改訂文을 붙여놓고 있다.

#### 2181/57/1

「新學制 音樂教科書」(小學校初級用 第1冊, 商務印書館 民國 13年 1月 初版, 民國 16年 2月 7版)

여기서도 舊版 위에 改訂文을 붙여 놓았는데 舊版의 「國旗」單元の 歌詞가 「저 보기좋은 國旗의 다섯가지 색깔은 정말 아름답네, 나는 너를 사랑하네, 나는 너를 사랑하네, 너에게 경례를 부치네」중의 北京政府의 五色旗를 指稱하는 「다섯가지 색깔」이 國民政府의 「白日青天紅滿地」로 改訂되어 있다.

#### 2181/62/2

『小學制 歷史教科書』(第2冊, 小學校高級用, 商務印書館刊, 民國 13年 1月 初版, 民國 13年 3月 15版)※

第12課 「安南・緬甸의 滅亡」의 舊版에는 「清朝全盛시기의 南쪽에는 安南・暹羅, 緬甸 세나라가 있어 모두 朝貢을 해오는 外藩이었다」로 되어 있는데 改訂文은 「모두 朝貢을 해오는 外藩이었다」대신 「이 세나라의 민족은 역사상 모두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 있다」로 되어 있다. 그 뿐 아니다 이 第12課의 改訂文의 끝에는 「安南 緬甸의 민족도 스스로 떨쳐 일어나기를 바란다!」를 새로 첨가해 놓고 있어, 舊時代의 中華思想으로부터 새로운 反帝的 弱小民族聯合思想으로의 變化로 볼 수 있다. 이로서 南京政府初期에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또는 요구되는 분위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第13課의 「朝鮮問題」의 舊版에는 淸日戰爭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臺灣人民은 割讓되는 것을 원치않아 自立하

여 民主國이 됐으나 力量이 너무 약하여 할 수 없이 끝내 日本에게 점령당했다」로 되어있는데 改訂本에는 이 部分을 削除하고 그 대신 「그러나 朝鮮民族은 日本 帝國主義 압박을 甘受하지 않고 힘써 저항하여 앞 사람이 넘어지면 뒷 사람이 일어나고 있으니 끝내는 成功할 날이 있을 것이다」를 첨가하였다. 여기에서도 被壓迫弱小民族과의 連帶를 강하게 주장하여 朝鮮의 獨立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第14課의 舊版 제목은 「拳禍」인데 改訂文은 「義和拳」으로 되어있어 民衆運動에 대한 視角이 달라져 있음을 보겠는데 그 內容도 舊版의 「이 義和拳은 邪教의 一派이다」를 改訂文은 「이 義和拳은 白蓮敎의 一派이다」로 고쳐 놓았다. 第15課의 「民國興起」도 舊版은 清朝와 清朝의 帶兵將領을 主體로 하여 1912年の 民國 政府成立과정을 서술하고 있는데 改訂文은 孫文을 中心으로 서술하고 있다.

※ 이 第2冊엔 「民國 13年 3月 15版」이라 했으나 같은 시리즈의 第4冊 「民國 13年 12月 20版」本에는 표지에 「中華民國 17年 4月 經大學院審訂」이라는 고무印이 찍혀있어 改訂이 南京政府의 大學院 감독하에 1928년에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大學院은 南京政府가 教育總括機構로서 1927年 6월에 설치하여 1928年 8월에 廢止될 때까지 存續하였다. 그 뒤는 教育部가 教育을 총괄하였다. 이로 보아 여기의 第2冊도 마찬가지로 경우이나 위의 고무印이 우연히 누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民國 13年 3月の 時點(國民黨支配가 미치지 않은)에서는 이같은 內容의 改訂이 이루어질 수 없다.

2181/63/4

『新學制「地理教科書」』(第4冊, 小學校高級用, 商務印書館發行, 民國 16年 1月 65版)※

第6課 「蘇維埃聯邦의 俄羅斯」의 舊版에는 「모든 제도는 아직 실행단계에 있다. 現在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모스크바市內엔 누구를 막론하고 대개가 노동복을 입고 있으며 아울러 일하지 않으면 밥을 먹을 수가 없다. 결소함과 禁酒, 도박금지 등...을 勵行하고 있는데서 소비에트러시아의 정치의 新精神을 볼 수가 있다」로 되어 있는데 改訂文은 「모든 土地物品은 公有로 되어 다시 일반人民에게 配給됐다. 그러나 몇년동안 (이 정책을 시험해본 결과 경작지가 황폐하고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노동이 조잡해져 人民의 生計가 매우 어렵게 되어 이에 소비에트정부는 본래의 주장을 죽이고 新經濟政策을 推行하였다」로 하여 「新經濟政策」을 多分히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표지에 中華民國 17年 4月 經大學院審定の 고무도장이 찍혀있다.

2181/67/4

『新撰公民教科書 第4冊(新學制小學校高級用, 商務印書館發行, 民國 14年 4月 10版)※

第9課에 「婦女運動」이 있어 女性運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特異하다.

※이것도 아마도 民國 17年 4月の 大學院審定畢의 것일 것이나 고무印은 찍혀져 있지 않다. 이들 교과서는 大部分이 京城帝大 교수였던 花村美樹가 기증한 것이라는 고무印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同一時期에 花村 개인에 의해 수집·기증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民國 14年の 北洋政府支配體制內的 교육이 女性運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2181/81

『歷史教科書』(察南教育復興籌備委員會編, 察南自治政府 審定, 民國 27年 2月 15日 刊行, 奉天 野野印刷工廠 印刷)

日本軍部の 실질적인 支配下에 있던 蒙古의 차하르 自治政府의 교과서인데 日本人의 華北支配形態의 一端을 볼 수 있다. 第15課의 「中華民國」에는 「(中華民國의) 禮敎를 廢棄하고 孔孟을 推翻한 支那現代의 風俗은 끝내(中華民國의) 國運과 한가지로 망가졌으니 王道主義下에서 儒敎를 유지하고 孔聖을 尊奉하고 있는 우리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지 않는가!」라 한 것이 있다. 二十世紀의 侵略支配者가 儒敎·孔聖之道를 支配理念으로 삼으려 한 것을 알 수 있어 흥미롭다.

2181/83

『論語』(察南教育復興籌備委員會編, 察南自治政府 審定, 民國 27年 2月 15日 發行)

20세기의 보통교육기관의 교과서로서 『論語』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위의 歷史教科書의 서술내용과 合致하는 일이다.

2181/84-4

『國文教科書』(察南教育復興籌備委員會編, 察南自治政府 審定)

第11課에 「滿州建國」이라는 單元이 있으며 그 안에 「共戴今上爲皇帝」云云의 표현이 보인다.

2181/100

『日本語譯 支那の小學教科書』(岡井二郎編, 昭和 7年, 東京 南光社 發行)

北伐以後의 주된 小學校教科書中 三民主義教科書, 國語教科書 중에서 뽑아 日本語로 번역한 것이다. 수록된 것은 『新時代初級小學三民主義教科書』(全 4

冊) (「三民主義」「關稅」「不平等條約」「中國人的天才」등 單元이 있다) 『新時代初級小學 國語教科書』(全 8冊) (第 6冊을 보면 「洪秀全的故事(男女平等실시 纏足禁止 등의 잘한 일과 皇帝思想에 사로잡힌 잘못된 일을 並記함)」 「鴉片自述」 「委奴國的故事(漢委奴國과 倭寇를 연결한 내용)」가 있다. 『新時代高級小學 國語教科書』에는 「五四運動」「帝國主義者的政治侵略」「和友人討論女子剪髮的信」이 있다. 「和友人討論女子剪髮的信」은 편지의 형식으로 新女性の 斷髮風潮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 이 시기의 風俗문제의 一端을 엿볼 수 있게 한다.

## 2181/103

『新時代三民主義教科書』(大學院 審定, 小學校初級用, 商務印書館 發行 nd.n.p.)  
第 8冊 흥미있는 單元으로 第14課 「改良農村組織」, 第15課 「扶助勞工」이란 것이 있다. 이 第15課의 주된 內容은 노동시간 단축, 賃金引上을 위한 도움을 서술한 뒤에 國民革命時의 國民黨의 구호인 「農工學兵은 聯合하자」를 인용하고 있다. 4·12 쿠데타 이후의 南京政權엔 아직도 이 구호의 효용이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第16課는 「男女平等」, 第18課는 「土地問題解決」이다. 이 역시 當時의 時代的 분위기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事例라 할 것이다. 그 밖에 『三民主義課本(小學校初級用)』(2181/106)도 있다.

## 2181/105

『新時代地理教科書』(大學院 審定, 小學校高級用 np.n.d)  
第 4冊의 第17課, 第18課는 「帝國主義와 世界(一, 二)」로 되어있어 帝國主義 문제가 여전히 중대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의 피압박민족에 대해 언급하고 日本의 침략을 비난하고 있으나 日本의 한국침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 2181/107

『新中華三民主義課本』(大學院 審定, 小學校高級用, 民國 17年 6月 18日 上海中華書局 印行)

이 三民主義 교과서는 보기 드물게 編輯者, 校閱者의 이름이 있다. 前者에는 陸紹昌, 後者에는 國民黨의 理論家 葉楚傖의 이름이 보인다.

## 2181/109

『新中華 歷史課本』(教育部 審定, 小學校高級用, 民國 19年 12月 20日 上海中華書局 印行)

이 역시 編者들의 이름이 보이는 바 編者에 鄭昶, 洪良, 校者에 陳策, 張相의 이름이 보인다. 第 5課는 「帝國主義侵略下的 中國民生」, 第 6課는 中國民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 舊刊圖書 中國近現代關係 特異書目 및 [ 61 ]

族運動, 第20課는 「近世女權의 發達」로 되어 있다. 이 교과서 뿐 아니라 앞에 본 많은 교과서에 女權 문제가 거의 모두 다루어져 있는 것은 國民革命期의 주된 思想的 特徵의 하나가 女權伸長 主張인 것을 말해준다 하겠다. 中華書局의 教科書로는 教育部審定 新學制適用 小學教科書 『國語讀本』(初級 第4冊~8冊 (2181/110-4~8)(民國 12年 發行, 民國 14年 11月 30版)이 있다. 內容엔 별 改定이 없다. 이것은 民國 14년에 인쇄한 것을 民國 19年경에 教育部的 審査를 거쳐 그대로 發行한 것일 것이다.

#### 2181/111-1~8

『國語讀本』(教育部 審定, 新學制適用 新小學教科書, 民國 12年 2月 發行, 民國 14年 11月 23版) 高級 第1冊~第8冊

第2課의 「太陽과 中華民國의 國旗」의 舊版文에 「우리의 中華民國의 國旗는 紅, 黃, 藍, 白, 黑 五色으로 되어 있는 바, 이는 太陽의 햇빛을 나타내는 것이다」라 한 것이 있어 舊五色旗의 설명을 太陽光線에 맞추어 했었음을 알 수 있다.

#### 2181/112

『高小修身教科書』(第1冊)

이는 民國 28年 8월에 教育總署編審會(北京 中南海 德仁堂)가 刊印한 것으로 되어 있다. 日本 影響下의 北京에서 나온 教科書이다. 內容엔 별 特記할 만한 것은 없다. 고무印으로 新定價 2角 6分이라 적혀 있다.

#### 2181/118

Ulus arad-un Surghaghuli-dur Kereglekü Monghol kelen-ü arad-un ungshikh bichig(原文은 蒙文)

成吉思汗紀元 735年 1月 發行, 民政府檢査濟.

著者兼發行者는 民政府(蒙古 厚和市)라는 漢文표시가 있다. 民政府檢査「濟」라는 日本式 漢文이 갈해 주는대로 日本 影響下의 蒙古聯合 自治政府 民政府에서 日本의 統制下에서 펴낸 國民學校 蒙古語 교과서이다. 2181/119-12에는 蒙古聯合自治政府의 「國民學校用 算術教科書」도 있다.

#### 2181/115

『高小地理教科書』(教育總署編審會編) 第1冊.

第1課의 「우리나라의 領土」의 地圖에 東北地方은 滿州國으로 표시되어 있고 首都는 南京으로 되어 있다.

2181/121

『孝經』(高級國民學校用).

日本統制下の 德王의 蒙古聯合自治政府에서 刊行한 漢文『孝經』이다. 刊行은 成紀 735年 1月이며 若干의 註가 있다. 日本人이 세운 蒙古人의 政府가 前淸時代도 아닌 시기에 普通教育에 『孝經』을 活用하려는 發想이 흥미롭고, 儒敎와 支配論理와의 밀접한 關係의 可能性을 實物로써 제시해주고 있다.

2181/123/1~2

『論語』(高級國民學校用)(上・下).

孝經과 마찬가지로 蒙古聯合自治政府에서 成紀 735年 1월에 刊行된 것이다.

2181/124

『日本史敎科書』(高級國民學校用).

이 역시 蒙古聯合自治政府가 成紀 735年 1월에 刊行한 것인데, 植民地도 아닌 蒙古의 少年에게 日本史를 正規 敎育과목으로 가르친 日本支配者의 오만을 엿볼 수 있다. 第2課「大陸으로 향한 發展」에는 「神功皇后遙望新羅」라는 그림도 넣고 있다.

2290/17

『國立北京大學研究所 國學門概略』

1927년에 刊行된 것으로서 研究所名을 佛語로 Institut de Sinologie de l'universite Nationale de Pekin 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北京大學校史 研究, 中國의 國學研究史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총 24pp.

2290/18

『國立北京大學研究所 國學門章程』

총 10pp.에 달하는 國學門의 內規이다.

3080/13/5~30

『中華童話』(第5種~第30種)

民國 3年 3月 初版, 民國 25年 4月 11版으로서 各冊 40刊 内外의 포켓트版 童話集이다. 童話라고 하나 歷史의 故事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 中國의 아동정신발달에 영향준 童話世界를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現在所藏된 것인 缺本이 더러 있다.

3380/3/1~33

『滿漢文祭文(德宗五本)』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 舊刊圖書 中國近現代關係 特異書目 및 [ 6 3 ]

德宗死後, 宣統時期에 公式行事に 쓰인 祭文의 原文으로 보이는 것들이다. 아마 北京의 故宮에서 흘러나와 古書籍商을 통해 舊京城帝大 도서관에 收藏된 듯하다. 그 한 例를 제시하면 「監國攝政王詣德宗景皇帝几筵前祇告受命 告祭文」은 侍講 臣 程棫林恭擬, 臣 榮慶, 臣 孫家鼐 恭閱로 되어있다. 光緒 34年에 監國王이 攝政이 된 것을 德宗에 告하는 內容인 바, 滿文祭文과 合綴되어 있다. 「德宗五本」(이는 古書籍商이 써부친 것인듯) 外에 「先師(孔子)五本」, 「琪皇貴太五本」 「五嶽祭文五本」 「祭東西南北海四本」 「東西南北鎮四本」 「長白山祭文一本」 (光緒 34年에 皇帝가 致祭於長白之臣을 보내어…云云으로 되어 있다), 「歷代帝王陵寢祭文一本」 등이 있다.

3421/4/66/1~4

『新文選』(民國 3年, 雷瑒撰, 掃葉山房 發行).

民國初年(3년까지)의 여러 사람의 글을 모아 놓은 것으로 『民國經世文編』 등에도 없는 자료도 많다. 수록된 것 중 몇 가지의 例를 들면 袁世凱의 「學校祀孔令」, 張謇의 「尊孔國歌」, 唐文治의 「中國改革政體論」, 羅傑의 「赴京請願國會感賦」, (清末 湖南省의 學政으로서 變法思想을 고취한 사람으로서 有名한) 江標의 「題朝鮮王閔妃遺像」 등이 있다. 그의 薛福成, 唐才常(1900年 死亡) 등의 글도 있다.

江標의 글은 卷 424b에 실려 있는데, 그 中에 「題朝鮮王閔妃遺像」이란 것이 있어 우리의 흥미를 끈다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嬌紅面濺怨鴛頸	玉痕夜冷懸肢井
茫茫黃海恨難填	萬里飛花落春影
蛾眉小蹙星眸睇	海蘭煙淨芳膏貝
拈拈雙絨繡繡鳳縹,	依依低睇秋蛇髻
漢家禍水君知否	麗華雖好非長耦
異事新徵意大利	靈妃碧血留朱牖
漢城柳色青依然	沒鵝鴨綠螺痕妍
開筵相對春猶在	好記句驪改朔年.

3438/10/1.8.9

『交鄰尺牘』

韓末 甲午年(1894) 陰曆 正月 二十日 清朝에 燕行事로 간 正使 李正魯(東潒)(判中樞府事)와 副使 李胄榮(酉齋)를 위해 戶部主事 黃膺(鹿泉)이 北京의 畿輔先哲詞 君子館에서 親知를 불러 招宴을 베풀었다. 그 때 모인 參席者에게 詩를 짓게하여 그 親筆詩를 製本한 것이다. 그 詩의 說明文에 『獻館詠春集』이

라는 것이 보임으로 이것으로 도서분류자가 부쳤을 『交鄰尺牘』이란 이름을 대신 해야 할 것이다. 詩를 적은 用紙에 아예 『獻館詠春集』이라고 박혀있다. 第9冊에는 招宴에서 請牒(活版印刷)도 포함되어 있다. 詠詩者중에는 徐世昌, 俞明震, 曾廣鈞 등 뒤에 知名人이 된 사람도 끼여 있다.

## 3438/10/2. 3. 7

## 『交鄰尺牘』

위의 『獻館詠春集』과 함께 制本되어 있으나 內容은 健齋라는 사람이 國內에서 外國人으로부터 받은 書簡을 모아 놓은 것이다. 『獻館詠春集』과 함께 製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健齋는 李正魯의 雅號인 듯하다. 第二代 駐朝鮮中國公使(1901~1904)인 許台身이 大皇帝萬壽節을 맞아 公館에서 베푼 祝宴에의 청첩, 初代駐朝鮮公使(1898~1901)인 徐壽朋 및 周馥 등의 편지(3438/10-2), 袁世凱, 傅良弼, 盛宣懷, 英國外交館 朱爾典(Jordan) 등의 편지(3438/10-3), 李盛鐸, 吳廣霈, 穆麟德(Möllendorf)의 편지, 周馥과 天津에서 교환한 筆談紙(3438/10/7)가 포함되어 있다. 李盛鐸의 편지 가운데는 上海에서 刊行되는 『萬國公報』를 요청대로 3冊을 구해서 보낸다는 것이 있다. 이 시기의 朝鮮人士들의 新知識吸收루트의 한 例이다.

## 3438/13/1-2

## 『袁世凱書牘(上·下)』

袁世凱가 金允植에게 보낸 편지 11通을 製本한 것의 寫眞版이다.

## 3438/14

## 『唐紹儀等書牘』

唐紹儀, 吳長慶, 周馥 등이 金允植에게 보낸 편지의 寫眞版이다.

## 3438/16

## 『丁汝昌書牘』

丁汝昌이 金允植에게 보낸 편지 한 通의 寫眞版이다.

## 3590/4

『評中西文化觀』(民國 13年 6월에 李振陂가 發行人發行機關 및 發行地無)

楊明齋가 1924年 무렵의 東西文化論議를 批評한 것으로서 梁漱溟의 『東西文化及其哲學』, 梁啟超의 『先秦政治思想史』, 章士釗의 『農國辯』 등에 보이는 中西文化觀을 비판한 것이다. 楊明齋(1882~1931)는 일찍부터 러시아에서 교육받아 보이틴스키 등과 함께 코민테른 要員자격으로 中國에와 陳獨秀를 도와 中國共產黨을 創建하는 데 힘썼고 1921년부터 1925년까지 사이에 中共黨內的 理論,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 舊刊圖書 中國近現代關係 特異書目 및 [ 6 5 ]

教育, 宣傳을 담당한 바 있다. 周策縱의 『五四運動史』(英文) p.244에 간단히 이 책이言及되어 있다.

4375/5

『南方革命勢力の實相と其の批判』(昭和 2年, 北京, 極東 新信社 刊)

李石曾이 民國 16年 3月附의 序文을 썼다. 著者 佐佐木到一은 陸軍歩兵中佐, 北京公使館附 武官이다. 第 7 章은 國民黨要人, 共產黨要人에 관한 人物評이다. 그리 드문책은 아니나 國內서는 흔하지 않은 자료이다. 길게 뎡기를 댄 廣州女學生들의 示威・사진도 있다.

4375/12

『中華民國第十一年史』

滿鐵의 調査課에서 著述하여 大正 12年 6月에 發行한 것이다.

4375/16

『支那革命實見記』(明治 44年 刊)

明治 41年 5月~6月에 大阪朝日新聞에 실린 것을 책으로 池亨吉이 낸 것이다. 孫文을 도와 革命運動에 종사한 사람이 孫文의 활동에 대해 보고 들을 것을 적은 것이다. 英文으로 된 The True Solution of the Chinese Question이 부록으로 첨가되어 있다.

4391/48

『延吉邊務報告』(線裝 4冊)

吳祿禎이 지은 것으로서 光緒 34年에 奉天學務公所에서의 再版本이다. 間島 문제를 둘러싼 中國側 견해가 나타나 있다. 吳祿禎의 자격은 幫辦吉林邊務陸軍協都統陸軍正參領이다. 第 4 章은 韓民越墾之始末, 第 5 章은 吉韓界務之始末, 第 6 章은 日韓謬說之糾正, 第 7 章은 日人經營延吉之原因, 第 8 章은 日人經營延吉之政策 등이다.

4420/3

『越南亡國史 附越南小志』

越南亡命客巢南子(本名 關 鈞이 차이; 潘佩珠)가 쓴 것을 梁啓超가 主管한 新民叢報社에서 通俗時局鑑 第 3 種으로서 刊行한 것. 梁啓超가 序文쓰고 「越南亡國史前錄」을 썼다. 「越南小志」는 新民叢報社員編으로 되어 있다.

4520/8/1-2

『泰西新史(上・下)』(建陽 2年 5月, 學部編輯局 刊)

표지제목은 위와 같으나 책 안에는 「攬要」二字가 들어 있다. 上海의 廣學會의 蔡爾康이 번역한 맥켄지의 西洋 19世紀 近代史로서 戊戌期の 中國改革派들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을 建陽二年에 政府에서 謄印(漢文)한 것이다. 但 學部編輯局의 序는 國漢文으로 되어 있다.

## 4610/10

『1924年 支那在留邦人人名錄』(大正 13年 9月, 第15版, 上海 海寧路 金風社 發行)

1924年 당시 全中國에 居住하고 있는 日本人의 人名錄으로서 人名, 職責(業種), 本籍, 現住所, 電話番號가 기록되어 있다. 北京中央政府의 支那政府招聘員條에는 總統府軍事顧問 陸軍中將 坂西利八郎, 同補佐官步兵大尉(後日の 滿州帝國造立者) 土肥原賢三(二의 잘못), 交通部鐵道顧問 工學博士 平井晴二郎 등 總 15名이 보이며, 雲南在留邦人人名 項에는 支那僑本邦武官이라 하여 軍事顧問大佐 山縣 初男, 衛生顧問軍醫 溝口貞吉 등도 보이며 地方軍閥 政權에의 日本人 침투상황을 알 수 있게 한다. 上海 日本總領事館의 駐在武官으로서는 陸軍中佐 岡村寧次, 屬員 室靜男, 屬員 村上一天, 海軍中佐 猪瀬乙彦, 陸軍大尉 酒依隆의 5名の 이름이 보이며 上海總領事館警察署에는 署長(警視) 連修 以下 16名の 경찰관의 이름이 보인다. 內外綿株式會社上海支店, 上海紡織株式會社 등의 人名錄을 보면 會社의 構造를 一目瞭然하게 알 수 있다. 國際通信社 北京支社에는 『孫文傳』으로 알려진 鈕鈴江言一의 이름도 보인다.

## 4800/9

『福建事情』(外務省通商局 大正 6年 刊)

1910年代의 福建事情을 상세히 조사해 놓은 책이다. 官制, 稅收, 教育, 人口, 交通, 氣候, 產物, 貿易, 金融 등등을 상세히 다루었다.

## 4810/7/1-2

『清國事情』(第1輯, 第2輯)

明治 40年(1907)경의 中國의 사정을 外務省 通商局에서 조사하여 인쇄한 것으로서 鐵道, 賃金, 交通, 衛生, 產業, 度量衡, 本國人(日本人)이 着眼해야 할 事業 등의 항목이 있다. 中國駐在 各地區總事館에서 管轄 구역별로 조사보고한 것을 종합한 것이다.

## 4810/8

『香港事情』(外務省通商局 大正 6年 刊)

여러가지 항목을 세워 香港의 사정을 고찰하고 있다.

4810/216

『北支那紀行前後編』(2冊)(光緒 2(1875)年 刊)

出版者, 出版地가 안보이나 內容으로 보아 日本 海軍에서 刊行한 듯하다. 著者는 海軍中尉 從七位曾根俊虎(後日의 저명한 「支那通」이 됨)로서 山東, 天津, 滿州 地域에 관한 日本 海軍의 情報探索記錄이다. 「江蘇, 浙江二省紀行」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는 1874년에 기록한 것이다. 內容項目엔 兵備概略, 地理, 軍備施設(砲臺位置圖 포함), 物價, 氣候 등이 기록되어 있다. 第2冊(後編)에 「海軍軍務局 第202號」 도장이 찍혀 있으나 消印처분 되었다. 종이 많이 쓸어 保存狀態가 매우 나쁘다.

5130/196

『中華民國法規大全補編』(最高法院, 民國 29年 初版)

商務印書館에서 나온 『中華民國法規大全』을 계승한 汪精衛政權(1940.3月成立)下의 法典이다. 그 中 憲法부분을 보면 民國 25年 5月 宣布, 民國 26年 5月 修正으로 되어 있다.

5130/200

『增訂 國民政府現行法規』(國民政府 法制局編輯, 商務印書館 刊, 民國 19年 4月 初版).

根本組織法, 官規, 內政, 外交, 財政, 軍事, 交通, 司法, 教育, 農礦, 工商, 地方制度 등으로 分類되어 있다.

5310/90

『關東廳の法廷に現はれたる 支那の 民事慣習』(康德 3年(1936) 5月, 司法部民事司 刊).

民事訴訟慣習, 人事訴訟手續慣習, 商事慣習, 寺廟에 關한 慣習, 租稅에 關한 慣習, 官有財産에 關한 慣習, 漁業에 關한 慣習 등으로 분류된 遼東地方의 民事慣行을 수집한 것이다.

5370/41

『日清戰役國際法論』(明治 29年, 陸軍大學校刊)

清日戰爭을 國際法的인 面에서 日本의 立場을 옹호 정리한 것.

5370/51/1-4

『萬國公法』(同治 3(1864)年 京都崇實館 刊, 線裝 4冊)

中國에 최초로 萬國公法을 소개하기 위해 清朝當局에서 300部限定으로 發行한 것 중의 하나인 稀貴本으로 美國人 衛頓(Weaton)의 原書를 美利堅(美國)선

교사 丁韞良(Martin)이 번역하였다. 總理衙門에 올려 批閱을 받았으며 總理衙門의 王大臣이 官員을 파견하여 原稿를 校正하였으며 出版費도 주어서 出版하였다는 설명이 있다.

5390/1/1-22

『國民政府頒布現行法令全書』(民國 17年 10月, 中華法政學社 刊, n.p.)

南京政權 初創期の 法典인바, 官制類의 첫머리 「國民府府組織法」은 1928年 2月 4日 第2屆 4中全會에서 議決한 것으로 되어 있다. 「國民政府委員會會議規則」은 制定 日字없이 廣東國民政府公布라고만 되어 있다. 教育類(上)에는 短命하였던 大學院의 여러 規定 30개가 수록되어 있다. 1927년에 제정한 法規도 포함되어 있다.

5500/24

『建國詮眞』(癸亥(1923)春季 出版, n.p.)

北洋軍閥의 一員인 徐樹錚의 23項目에 걸친 政見書, 敘論 1편이 포함되어 있다. 國體, 國會, 官制, 用人, 仕風, 邦交, 吏治, 軍政, 財政, 鐵路, 電報, 墾牧, 僑民 등으로 分類되어 있다.

5520/78

『中華民國革命祕笈』(昭和 15年 帝國地方行政學會 發行, 東京)

孫文을 도와 革命運動에 종사한 萱野長知가 辛亥革命, 第二革命의 祕話を 소개하고 아울러 「孫文學說」을 소개한 것이다.

5520/113

『支那革命軍談』(宮崎滔天述, 明治 45年 2月 再版, 明治出版社 發行)

孫文을 도와 清末 革命運動에 從事했던 宮崎가 만담식으로 孫文革命 運動에 관해 演述한 臺本이다.

5520/115

『日華交友錄』(昭和 18年, 社團法人救護會 出版)

著者 高木陸郎은 中日合作의 中日實業株式會社の 日本側代表로서 부총재로 근무한 三井物產會社の 간부이다. 著者가 접촉한 孫文, 盛宣懷, 高凌霨, 張公權, 吳鼎昌 등과의 交友回顧錄이다.

5590/364

『學生救國全史』(民國 8年 10月, 上海 富文書局 刊)

著者 蔣公展은 5·4운동 당시 上海申報의 記者였는데 1919年の 五四運動의 前



서울大學校 中央圖書館 所藏 舊刊圖書 中國近現代關係 特異書目 및 [ 6 9 ]

後경과를 쓴 당시의 기록집이다. 여러 文件을 수록했는데 「學生團上美使說帖」 「康南海通電」 「曹汝霖辭職文」 「陸宗輿辭職文」 등이 포함되어 있다. 全國各地의 學生活動을 기록하였으며 第9章은 主로 上海의 총 파업을 函電 中心으로 기술하였다. 이 책에는 日本 東京大學의 政治學 교수였으며 五四運動에 대해 깊은 이해를 포하였던 吉野作造의 藏書印이 있다. 만년필로 「1923—Ⅷ—1 上海堂」이라 쓴 것이 있는데 구입시기를 적어 놓은 듯하다. 吉野의 藏書가 어떻게 當時의 京城帝大도서관으로 들어왔는가는 알 수 없다.

5590/148

『營口軍政志』(明治 45年 5月, 營口軍政署 刊)

明治 37(1904)에 露日戰爭 당시 日本軍이 營口를 占領하여 軍政을 實施한 前後경위를 기록한 것이다. 內容은 軍政開始, 司法, 衛生, 市務, 洋務, 教育, 交通通信, 海關, 土木, 經理, 軍政撤廢로 되어 있다.

5740/80

『支那の排日悔日について』

日本の 陸軍省이 刊行한 것으로 1928年 이후의 中國의 排日活動을 概說한 것이다. 出版年度는 인쇄되어 있으나 도서관카드를 풀로 붙여놓아서 볼 수가 없다. 부록으로 日譯한 各種의 國民革命歌, 「最近一般青年間에 널리 구독된 書籍一覽表」 등이 있다.

6043/60

『上海爲替市場解説』(昭和 3年, 上海週報社 發行)

濱田峰大郎의 原著를 川西武夫가 增補한 것으로서, 「銀價는 왜 움직이나」 「上海의 金融事情」 「場勢를 움직이는 要素」 등의 節이 있는 상세한 上海 金融市場案内書이다.

6090/307

『清國商況視察復命書』(明治 35年 7月, 外務省通商局 刊)

日本の 駐清公使館 二等書記官 橋原陳政이 지은 것이다. 清末의 各都市別의 經濟狀況 조사보고로서 各地稅則 등 자세한 기술이 보인다. 橋原은 明治 21年에 이미 大藏省에서 刊行한 『禹城通纂』을 저술한 바 있는 中國 전문가이다.

6090/165

『中華民國實業名鑑』(昭和 9年 東亞同文會(上海) 刊, 根岸佶 監修, 天海謙三郎 編)

日本人에 의해 1930年代 中國의 各業種別 會社의 所在地, 設立年, 資本金,

設備, 生産高, 製品, 商標, 販路, 業績(資産明細), 幹部人名 등이 수록되어 있고 알파벳순으로 索引이 붙어있다.

6380/22

『輪船公司股票存根』

袁世凱가 淸人の 在韓商務를 統理하던 시절의 中韓合作의 漢城通商通惠輪船公司의 股票(株式)의 會社保存分 152枚이다. 光緒 19年 3日字로 되어있는 이 股票의 所有者 중 朝鮮人은 漢城府의 趙鎬翊뿐인 듯하다. 住所가 漢城府로 되어있는 단 하나는 同順泰로 되어있어 在朝鮮華商임을 알 수 있다. 그밖의 모두가 香山縣人(蔡立本, 蘇積玉, 唐仲良, 唐仲祿, 鄭翼之 등)이다. 이 會社의 正式이름은 通惠淺水輪船公司이며 光緒 18年(1892)에 設立許可를 받았다. 業務는 官米와 客貨輸送을 주로 한다고 되어 있다.

9100/340

『中國農諺』(費潔心著 民國 26年, 上海中華書局 刊)

中國의 農諺을 時會之部 氣象之部 作物之部 飼養之部 箴言之部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附錄에는 漢劉景先生論元旦, 『禮記月令』二十四節氣陰陽對照表 등이 포함되어 있다.

9910/16/1-8

『明治三十三年淸國事變戰史』(日本陸軍 參謀本部編, 明治 37年 發行).

義和團亂 때 出兵한 日本軍의 公式記錄인데 作戰史의에 義和團의 咒術, 拳法, 服裝 등에 관한 一節이 있다. 全 6冊, 附府 1冊, 附圖 1冊.

9960/36

『支那城廓の概要』(昭和 15年 12月, 支那派遣軍總司令部編 刊)

陸軍少佐 石割平造가 蒐錄한 中國의 河南, 山西, 河北, 山東, 江蘇 及 北部 浙江, 安徽, 江西, 武漢의 당시 存在했던 城廓에 대한 세밀한 조사 기록이다. 城廓圖(단면도)가 일일이 그려져 있는데 성벽의 높이, 폭, 材質 등과 아울러 縣의 戶數도 기록되어 있다.